

“이제는 경제방역” 남구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다

〈Post Corona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일상〉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경제대책본부 확대 편성

구청 내 전체 부서 투입… 상황 종료까지 운영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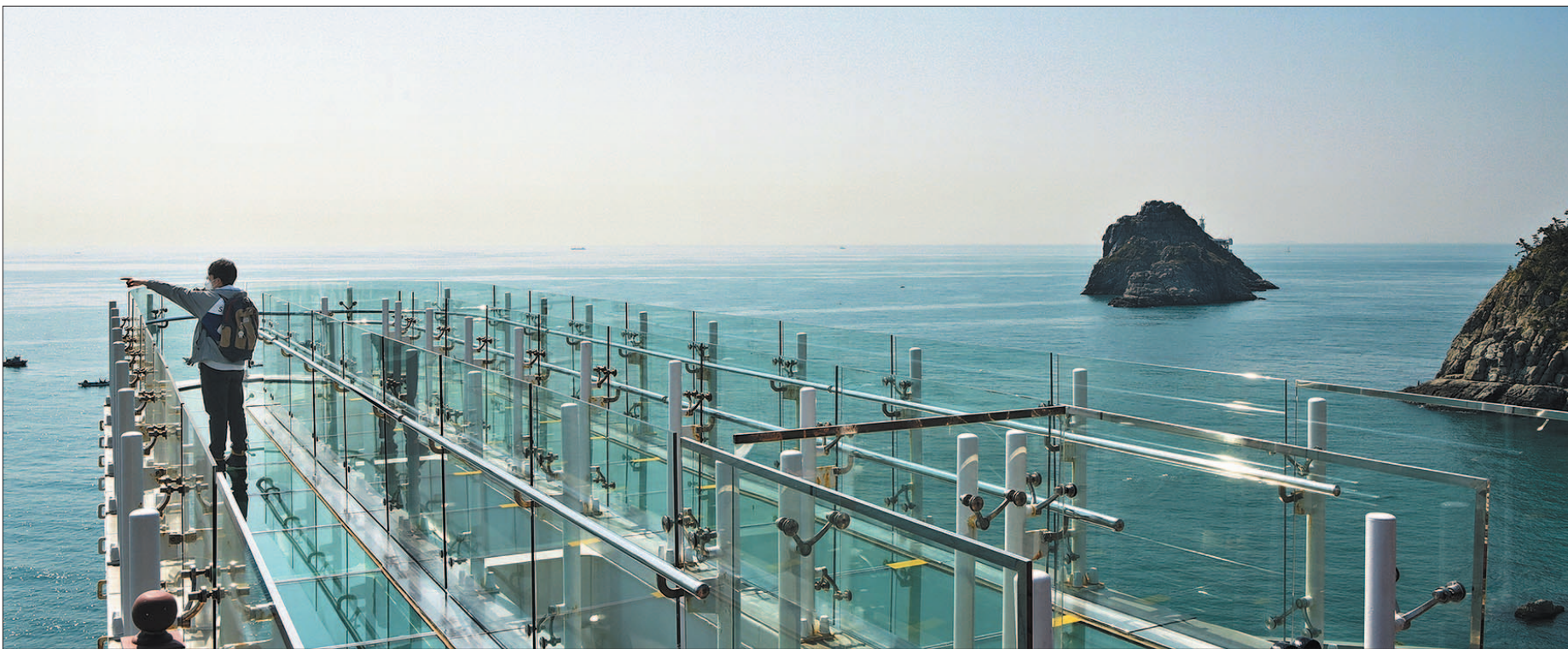
골목경제를 살립시다!

방역 못지않게 경제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기울이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사태 이후)’에 남구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건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는데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감염병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방역도 발 빠른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초 긴급 조직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4월 20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기존의 △상향 및 민생안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재정경제지원반 외에 △총괄지원반 △취약계층지원반 △인력지원반 △현장고용지원반 △생활지원반이 추가로 편성됐다. 각 지원반은 부서 별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굴하는 동시에 총괄지원반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주민홍보, 공공부문 집행·계약, 지방세제 지원, 인력지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관내 공사현장 등에 남구주민 고용 창출, 청소·교통·녹지 등 주민생활 지원 등을 펼친다. 사실상 구청 내 전 부서가 투입된 이번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일자리경제과 ☎607-4476



‘다시 꿈틀대는 일상’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정부의 사회적거리 완화 조치에 따라 남구는 지난 4월 27일부터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포함해 지역 내 야외시설의 개방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월 22일까지 신청

〈소득 관계 없이 1인당 5만원〉

인터넷·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선착순 아닌 전 주민에게 지급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남구가 남구회의의 조례 제정 및 의결을 거쳐 구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특별재난기금으로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주민에 한해 지급되며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7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 4월 7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시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7일 이전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인터넷(www.bsnamgu.go.kr)이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급적 간편한 인터넷 신청을 권장하며,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혼잡 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5부제 신청’ 규정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접수창구 및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 동시에 구청 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지원금 홍보와 지급자료를 정리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9일 기준 총 1만5036세대 중 9만5842세대(83.4%)가 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주민지원과 ☎607-4312

골목가게 이용하면

‘명품 마스크’ 증정

2만원 이상 영수증, 마스크 교환

상권 100억 이상 매출중대 기대

남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스크 교환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남구 내 골목상권을 이용한 뒤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향균 기능성 마스크를 무상으로 교환 해주고 있다.

남구 골목가게를 이용하면 남구 주민 여부와 상관없이 합산영수증 2만원당 마스크 1매(1인당 하루 최대 3매)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유효기간은 7일이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시간 중 교환하면 된다.

하지만 사행성·불건전 업종, 유흥·단란주점 및 대형마트(SSM포함)에서 받은 영수증과 영수증 확인이 어려운 노점상이나 무등록 업체는 이번 교환 사업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교환 사업은 마스크 소진시까지 진행하며 이번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 외에 관내 골목상권에 100억원 이상의 구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향균 기능성 마스크는 KC인증을 받은 국내 생산 제품으로 향균테스트 시험 결과 40회 이상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 ☎607-4295



남구가 지역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수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 등 비용이 없는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가운데 지난 4월 14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코리아센터 관계자로부터 배달앱 개발에 대한 설명과 시연회를 가졌다.

수수료·광고비·가맹비 없는

‘착한 배달앱’ 남구가 직접 만든다

하반기 출시 목표… 소상공인 실질적 수익 증대 기대

남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가맹비 등이 없는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가뜰이나 어려운데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이고종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남구의 공공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가칭 ‘착한배달(착한배달 남구)’은 가맹점 이용 수수료나 업체 노출을 위한 광고비, 가입비 등이 전혀 없어 관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골목화폐)과 연계하면 이용 주민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남구는 지난 4월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커머스 전문기업(주)코리아센터(대표이사 김기복) 관계자들과 공공배달앱 구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코리아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재능기부 방식으로 공공배달앱의 무료 개발 및 운영을 약속했다. 코리아센터의 애플리케이션은 단순 음식 배달서비스 외에 숙박, 뷰티, 레포츠 등 지역 상권의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남구는 올 하반기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공공배달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 ☎607-4472

“획기적 검체채취” 전세계 극찬… 50여 국서 도입 추진

특허청 등 범정부지원단 구성

남구청이 후원하고 남구보건소 의사가 고안한 ‘감염병 검체 채취 장비’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로부터 ‘K-워크스루’로 공식 명칭을 부여 받은 이 장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현재 세계특허 등 세계 표준화와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K-워크스루를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구성됐다. 특허청은 워크스루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 양산과 자금지원 등을 맡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중소기업 제품 수출 국가 브랜드인 ‘브랜드K’를 제품에 적용해 해외 판로를 돕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K-워크스루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생산기업을 ‘코로나19 수출 기업 명단’에 반영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이 앞 다퉈 지원에 나선 ‘K-워크스루’는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사무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화학·전자·에너지 분야에서 필수 장비인 글로브 박스(glove box) 제작 업체인 ㈜고려기연이 구현했다.

K-워크스루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전화박스처럼 생긴 밀폐된 투명 부스 안에 의료진이 들어가 고위 글로브를 통해 바깥의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한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료진 감염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 검사 1분, 소독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차량에 탄 채 검사를 진행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검사 기법이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K-워크스루의 제작 비용은 한 대당 800만 원 정도이며 대국에 30대가 첫 수출되었고 미국 등 50여개국에서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사무관이 자신이 고안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장비인 ‘K-워크스루’의 사용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정책과 ☎607-6401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5월 8일 조기 마감합니다

① 당초 4. 6. ~6. 5.
→ 변경 **4. 6. ~5. 8.**

②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5부제 해제 및 토·일요일(5. 2. ~3.) 온라인 신청가능

■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